

대면집단에서의 언어반응 변화 추세와 자아 개념 변화에 관한 연구

-선불교적 소집단훈련(동사섭)을 중심으로-

임 승 환·이 장 호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언어적 상호작용 과정을 분석하고 자아개념의 변화를 측정하여 훈련효과와 과정변인을 연결짓고자 하는 시도적 연구로서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방향 설정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훈련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소집단 훈련에 참여한 처치집단($n=14$)과 대기집단($n=14$)을 짝짓기(Matching)하여 자아개념 검사로 사전, 사후, 추수검사를 실시 하였다. 처치 집단은 총25회기로 이루어진 숙박형태의 집중적 과정에 참여했으며 그중 20회기는 비구조화된 상황에서의 자기 노출과 귀환반응 과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촉진 되었다. 대기집단은 같은 기간동안 아무 훈련도 받지 않았다. 자아개념 변화량을 종속측정치로 하여 변량 분석을 실시한 결과 즉각적 효과에서는 총자아긍정 점수와 6개의 하위척도가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15주후의 장기효과 검증에서는 자아긍정 총점수 그리고 4개의 하위척도에서 효과가 유지되고 있었다. 집단과정에서의 언어반응은 90% 정도가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었으며 이것도 소집단 훈련과정이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을 변화의 중요한 요소로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전체 집단참여자들의 평균적 변화 양상이 반응유목별로 제시되었다. 동일한 집단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들이 구분 가능한 3가지 형태의 언어반응 변화 양상을 보였으며 언어반응 변화양상에 따른 3집단 중 1집단은 Tuckman & Jensen(1977)의 발달모형과 일치 되었다. 이 발달모형에 부합된 집단의 자아개념 변화량은 다른 집단에 비해 변화량의 평균 점수가 즉각적 측정에서 다른 두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기노출과 귀환반응 변화양상에 따라 구분한 세집단이 훈련효과 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 하였으나 의미가 없었다.

전통적 개인치료에서는 여러가지 치료법이 신경증적 증세를 가진 환자를 중심으로 개발 되었다. 그러나 60년대 이후부터 80년대 사이에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할애되어야 하고 상담활동이 치료적 기능보다 예방적 기능을 예방적 기능보다 촉진적 기능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름에 따라 일반

사람들에 대한 정신질환의 예방과 자아실현 추구등을 목표로 하는 소집단훈련이 개발 발전되었다. 인간의 심리적 문제는 대부분 상호 연결된 집단 내에서 파생되는 것인데 이것을 소집단이라는 치료적 모형 속에서 새로이 직면하여 체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것이 소집단 훈련의 기본 목표이다.

T-집단(Bradford, Gibb & Benne, 1964), 대면집단(Rogers, 1970), 그리고 감수성훈련 집단 등은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을 위한 소집단 훈련 모형들로서 비구조적집단 1) 형태를 주요특징으로 하고 있다. T-집단은 194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 동북부에서 NTL(National Training Laboratory)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되었다. T-집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모호한 환경에서 집단 활동의 계획과 논의의 주제를 결정하는데 책임있는 전통적 의미의 지도자가 없이 참여자들 스스로가 자신들의 다양한 행동양식들을 학습자료로 활용하는 것이다. T-집단의 규범은 그 집단 내에서 참여자들에 의하여 서서히 발전되고 채택되며 집단의 참여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언어적 상호작용이 집단과정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면집단은 T-집단에 실존주의적, 인본주의적 사상을 보완시킨것으로 1960년대부터 Rogers를 중심으로하여 발전되었다. 60년대 초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대면집단은 집단을 촉진하는 자의 신념이나 인간관에 따라 특징이 약간씩 다른 다양한 형태의 소집단 훈련의 발생을 자극하였다. 시간의 집중성을 강조하는 마라톤 대면집단(Stoller, 1969), 신체적 에너지의 이완과 신체 활동을 통한 경험을 강조하는 감각각성집단 또는 개방적 대면집단(Schutz, 1971), 그리고 T-집단과 대면집단의 특성을 고루 갖춘 감수성 훈련집단 등이 그 예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소집단 훈련들은 공통적으로 한 두명의 촉진자 또는 훈련자와 8명에서 18명의 비교적 소수의 인원으로서 구성되며 주로 개인 및 대인관계면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집단 참여자들간의 사적인 상호작용에 초점을 둔다. 최소한의 인위적 조직과 최대한의 허용적 분위기가 이들 집단의 주요 특색이다. 개방성 및 정직성과 관련된 집단규범들이 집

단내의 의사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진다. 귀환반응을 집단 참여자들간의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으로 활용한다. 귀환반응체계의 발달을 통하여 각 참여자는 그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지각되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그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하여 학습하게 된다(Rogers, 1970).

소집단 훈련에서 중요시하는 기법들 중에는 심리적으로 유의미한 개인적 정보를 노출시키는 대인간 의사소통기법이 포함된다(Rogers, 1957; Truax & Carkhuff, 1967).

전통적으로 T-집단이나 대면집단에서는 집단 참여자들간에 교환되는 언어적 행동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중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을 중요한 대인간 의사소통기법으로서 강조하고 있다.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행위이며 수신자로 행동할 한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양자는 위험도나 책임감에서 각기 다른 수준을 갖는다. 자기노출은 화자가 자신에 관한 소재를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참여자의 반응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지만, 귀환반응은 자기노출에 비해 보다 높은 위험도나 책임감을 필요로 하고, 일단 한 참여자가 정적 또는 부적인 귀환반응을 개방적으로 공유하고나면 자신에게 돌아올 반응을 예상하거나 통제할 수 없고 그의 개념체계가 분석되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집단과정의 발달단계에 따라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질과 양이 달라짐을 예상할 수 있다.

심리치료와 상담에서 기본가정은 “상담관계 및 과정이 변화의 매개물이다”라는 것이다(Cashdan, 1973; Greenson, 1967; Kell & Mueller, 1966). 이 가정을 토대로 하여 상담관계 및 과정이 내담자에게 변화를 수반하는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일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Cashdan, 1973; Dietzel & Abeles, 1975;

Lennard & Bernstein, 1960).

집단을 매개물로 하여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비구조적 소집단 훈련에서도 어떤 방식에 따라 집단과정이 변화하고 이 변화가 성공적인 훈련효과들과 연관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

인간중심치료 관점에서는 집단 촉진자의 조종이 없으면 집단은 스스로 자신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라는 가정에 토대를 두고 집단과정을 설명하고 있다(Corey, 1981). 이 관점에 따르면 비구조적 집단훈련은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발전한다. Tuckman & Jensen(1977)은 집단과정에 관한 많은 연구들을 개관하고 집단 발달단계에 관한 이론적 모형을 제안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 집단의 형성기(Forming)로서,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소재를 표현하는 것, 사회적 결치레없이 자신이 남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 저항하며, 과거의 감정과 경험을 기술하거나, 촉진자와 다른 참여자 또는 기존의 기준에 대한 의존적 관계가 설정된다.

둘째 : 격동기(Storming)로서, 다른 참여자와 촉진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들을 표현하기 시작하며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그리고 현재를 다루는 소재를 위협을 무릅쓰고 표현한다. 즉 대인간 갈등이 극화되고 집단의 영향과 과업요구에 대한 저항이 있게 된다.

셋째 : 규범기(Norming)로서, 참여자들은 전 단계의 저항을 점차 극복하게 되고 서로 간에 진실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친밀하고 개인적인 의견이 표현된다. 이때부터 집단과정이 점차 치료적 성격을 갖게 된다.

네째 : 수행기(Performing)로서, 집단이 유기체로서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 참여자들은 그들이 이전에 부인했던 자신의 어떤 측면들을 수용하기 시작하고 중요한 개인적 변화가 시작된다. 새로운 행동을 하면서 귀환반응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말한 것과 그들이 행동한

것 사이의 불일치가 있을때 이를 직면하게 된다. 긍정적인 감정이 표현되며 신뢰가 형성됨에 따라 친밀성이 증가한다.

다섯째 : 산회기(Adjourning)로서, 과정이 끝나간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자각을 하게 되고 집단내에서 참여자들의 행동변화를 관찰할 수 있게 되며 일상생활로 되돌아가서도 집단과정에서의 변화가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발달단계는 Tuckman (1965)이 처음 제안하였던 4단계에 마지막 한 단계가 첨가된 것이다. 제안된 4단계 집단발달 모형은 Runkel등(1971)이 실제 집단과정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러나 훈련된 관찰자에 의한 집단과정의 현상을 수집 정리한 데에 불과 했기 때문에 통계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소집단훈련의 효과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정변인에 관한 보고가 없었다.

기존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을 중심으로 하여 발달단계별로 특징을 추론해 본다면 집단과정의 초기에는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양이 중반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2단계부터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서서히 증가하게 되고, 집단이 유기체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 4단계부터는 귀환반응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며 집단이 후기로 진행됨에 따라 대인간 귀환반응이 개인내 자기노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될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사회에서 실시되고 있는 소집단 훈련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고 있는 동사섭 소집단 훈련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첫째, 선불교적 수도 경험과 독자적인 집단 훈련 경험을 배경으로하는 불교 승려가 촉진하는 대면집단 즉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참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자아개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태도 및 성격

적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 심리치료 및 상담 분야에서는 자아개념의 변화를 행동변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진 요인으로 보고 있다(이장호, 1982). 즉, 한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자아개념이 그의 행동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그의 성격과 정신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자아에 대한 개념형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주변과의 접촉 특히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서 이루어진다(Rogers, 1951). 집중적인 소집단 훈련과정에서 개방성과 정직성에 기초하여 참여자들간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노출을 하게 되고 다양한 귀환반응을 받는 것은 참여자들의 자아개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것이다. 여기서 개방성과 정직성이란 Rogers(1951)가 말하는 상담자의 촉진적 조건들중의 하나인 진실성(Genuiness)과 같은 의미이며, 집단과정에서 참여자들이 스스로의 행동양식을 학습재료로 하여 상호작용을 할 때 순간 순간 경험하는 자신의 감정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개념은 성장과정에서 부모나 주변의 중요한 타인들에 의한 평가 혹은 받는 사랑의 정도에 따라 건강하게 또는 그렇지 못하게 발달하게 된다(Schultz, 1977; Hall & Lindzey, 1979; Hjelle Ziegler, 1981). 소집단 훈련에서는 집중적인 자기노출을 통해 상호 친밀도가 증가하고 집단의 응집성이 발달하게 되면 상호간에 심리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이때 개방성과 정직성에 기초한 귀환반응은 순수한 대인간의 만남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상호 자기탐색의 증가, 방어적 태도의 감소를 촉진시켜 자아개념의 건전한 발달을 도울 수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자아개념을 자아실현 경향성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그것을 측정하기 위하여 POI를 많이 사용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는 자아실현 경향성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심리학적 구성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상담이나 심리치료의 일반적 과정목표로 널리 알려져 있는 보다 공통적인 참여자 변화의 기본으로서 자아개념의 변화량을 훈련효과의 지표로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자아개념의 변화가 훈련후 시간경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과정을 실제 축어록을 바탕으로하여 상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소집단 훈련에 관한 연구들은 집단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도 효과연구에 과정변인을 포함시키지 않으므로해서 어떠한 과정변인에 의해 효과가 일어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과정 연구들에서는 효과와 과정변인의 동시적 고려보다는 효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는 중요한 몇몇 과정요인들을 집단과정동안에 효율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한 구조와 기법등의 연구에 초점을 둔 모의연구가 대부분이고 실제 집단 전과정에 걸친 축어록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소집단 훈련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집단과정에서 효과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고 생각되는 언어반응, 특히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떤변화 양상을 보이는지를 소집단 훈련의 전과정에 걸쳐 자세히 기술하고자 한다.

셋째, 특정 발달 단계모형에 따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을 실제로 각 참여자들이 훈련과정 동안의 각 단계에서 보이는지를 축어록 분석을 통하여 살펴본다. 기존 집단 상담 연구들은 동일한 처치를 받은 참여자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변화를 경험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동일한 처치를 받았을때 동일한 집단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자 개인의 성격적

특성, 참여동기들에 따라 단일 집단내에서도 각기 다른 집단과정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uckman & Jensen(1977)이 제안한 발달단계 모형에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이 부합되는지를 개인 profile을 조사하여 알아보고 또한 특정 변화양상에 따라 참여자들의 분류가 가능하다면 동일 집단내의 분류된 하위집단이 보이는 독특한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이 얻어진 훈련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연구방법

1. 대상(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총 28명으로 소집단 훈련에 참여한 처치집단(n=14)과 대기집단(n=14)으로 분류되었다. 처치집단은 훈련 안내장을 받고서 참여한 유료자원자들로 평균 연령은 27.8세, 평균 교육 연한 16년(대졸), 그리고 남자 5, 여자 9이었으며 대기집단은 훈련 안내장을 받고서 참여하고 싶은 동기는 있었으나 개인적 사정들로 인해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사람들중에서 처치집단의 참여자들과 성별, 연령, 학력 등을 짝짓기 하여 선발하였고 평균 연령은 25.28세, 평균교육연한 17년(대학원 1년), 그리고 남자 5, 여자 9이었다. 처치집단의 참여자는 총 16명이었는데 사전, 사후 검사에 응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14명으로서 모두 사전, 사후 검사에 응하였다. 15주 후의 추수검사에서는 처치집단, 대기집단 각 1명씩 총 2명이 검사에 응하지 않아 추수분석에는 각 집단 13명씩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2. 상담자(촉진자)

주 상담자(남, 50세)는 불교승려이며 철학 석사 학위 소지자이다. 사단법인 '한국인성개

발연구회'의 회원이며 동 연구회에서 실시하는 전문 촉진자 과정을 수료하였고, '동사섭'이라는 명칭의 소집단 훈련을 89년 현재 까지 50여회 주관하였다. 89년 3월에는 한국임상심리학회로부터 법무부 보도직 공무원의 감수성 훈련 촉진자로서 추천되어 훈련을 주관한 적이 있다. 총 집단 참여 경험 70여회(총 600여일)이다. 보조 상담자(남, 31세)는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수료자(연구자)이다. 80년부터 주 상담자와 함께 '동사섭'을 주관하고 있으며 89년 3월 부터 법무부 서울소년원 감수성훈련 촉진자로 활동 중이다. 그리고 주상담자와 보조상담자는 전북 남원의 백장암에서 두차례에 걸쳐 90일간의 집중적 소집단 훈련을 불교승려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 바 있다.

3. 집단의 구성, 실시 및 시간형태

훈련효과를 최대화 하기 위해 집단구성은 제한된 범위(나이, 학력등) 내에서 이질적 집단으로 구성하였고 훈련실시 장소는 일상 생활공간과 격리된 문화적 고도(Cultural Island)인 지리산의 암자에서 5박 6일에 걸쳐 실시하였다. 집단의 크기는 촉진자 2명과 효과 측정에 응하지 않은 2명의 참여자를 포함하여 총 18명이었다. 훈련은 1989년 1월 7일-1월 12일(5박 6일)에 실시하였다.

4. 측정 도구

(1) 훈련효과 측정도구

자아개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Fitts(1965)가 제작한 "Tennessee Self-Concept Scale"을 정원식(1968)이 우리나라 사람들에 알맞게 표준화하여 만든 "자아개념검사"를 사용하였다.

(2) 과정 측정도구(집단과정 언어반응 분류체계)

Whalen(1969)이 제작한 "Group Process Verbal Response Category"를 번안하여 사용

하였다. 이 체계는 5개의 주요언어반응 유목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그중 2유목은 대인간 개방성을 대표하는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고 나머지 3유목은 ‘일반적 자기노출’, ‘집단과정에 대한 발언’ 및 ‘기술적 의사소통어’로서 일반적 대화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다. 작성된 축어록을 바탕으로 하여 평정자가 각 언어 반응을 이 유목척도에 따라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언어반응 유목에 대한 정의와 예들은 다음과 같다.

〈집단과정 언어반응 유목〉

〈1〉 자기노출

1) 사적인 자기노출: 현재의 상호작용과 관계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보통 자발적으로 제시되지 않는 느낌, 태도, 행동들에 대한 논의. 이러한 느낌, 태도, 행동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상처를 받게 만들 수도 있다. 사적 자기노출로 분류된 진술들의 실제 예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많은 사람들처럼 지위를 추구한다.” “나는 심지어 동성애를 할 수도 있다.” “나는 막 울며 주저앉아 소리치고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다.”

2) 즉시적인 느낌들: 현재의 집단 상호작용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비교적 사적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자발적으로 제시하지 않는 느낌과 태도들에 대한 논의. 이러한 느낌, 태도들은 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부정적인 평가에 쉽게 상처를 받게 만들 수도 있다. 실제 예들은 다음과 같다. “나는 여기서 소외를 당한 듯하다.”, “지금 나는 당황하고 있다(혼란스럽다).”

3) 개인적인 질문들: 보통 사적인 정보라고 생각되는 한 개인의 의견, 느낌, 행동들에 관련된 질문들. 실제 예들은 다음과 같다. “당신은 항상 침울해 있습니까?”, “우리가 침묵을 지킬때(말을 하고 있지 않을 때)(당신의) 느낌이 어땠는지 궁금하군요(어떻게 느

끼셨는지 궁금하군요).”

〈2〉 귀환반응

1) 긍정적인 귀환반응

다른 집단 성원(집단내의 다른 성원)의 논평, 외모, 혹은 행동들에 대한 한 개인의 긍정적인 인상 혹은 이것들에 대한 반응(혹은 느낌)을 전달하는 것. 이 범주는 칭찬이나 상대방을 추켜 주는(또는 우쭐하게해주는) 말들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은 민첩하고 지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2) 부정적인 귀환반응

집단내의 다른 성원의 성격, 지능, 행동등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 이 범주는 그 성원이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과, 적의, 조롱, 비판을 포함한다. 부정적인 귀환 반응으로 평정되는 진술의 예는 다음과 같다. “당신은 바보였군요”, “체, 굉장하군.”, “당신의 말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군요.”

3) 중성적인 귀환반응

이 범주는 한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에게 주는 직접적인 충고 뿐만 아니라, 한 성원에 관한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평가될 수 없는 언급들을 포함한다. 예) “당신은 말이 없는 편 같군요.”, “당신은 그녀에게 가서 말을 해야 합니다.”

4) 수용 귀환반응(귀환반응의 수용)

한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으로부터 받는 긍정적, 부정적, 중립적인 귀환 반응을 수용하는 것, 예) “그렇습니다. 당신이 옳은 것 같습니다.”

5) 거부 귀환반응(귀환반응의 거부)

한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들에 의해 제공된 자신에 관한 귀환반응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것. 예)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이렇습니다.”

6) 요구 귀환반응(귀환반응의 요구)

한 성원이 그 집단이나 특정 성원들에게 자신에 관한 평가를 해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것. 예) “나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일반적인 논의

1) 일반적인 자기노출 : 자신에 관한 비밀스럽지 않은(일상적인, 평범한, 일반적인) 전기적인 정보로,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거나 적절한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의해 쉽게(기꺼이) 자발적으로 제공된다. 예) “나는 시카고 출신입니다.”, “나는 이도시의 변두리를 잘 모릅니다.”

2) 집단 외 과정 : 실험이나 집단 상호작용에 관련이 없는 일반적인 화제들. 예) “모든 대학이 통신강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해군에 있는 사람을 한명 알고 있습니다.”

3) 일반적인 질문들 : 한 집단 성원에게 기꺼이 제공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정보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것. 예) “서울 대학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4) 집단과정

실험 조작, 실험의 목적, 실험자나 참여자들의 행동, 행동계획에 관한 언급과 같은, 실험에 관련된 일반적인 논의. 예) “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까?”, “모두 한꺼번에 이야기를 합시다—그렇게 하면 그들이 당황해할 것입니다.”

(5) 의사를 전달하는 말(의사전달어)의 기술적인 면들

1) 동의 : 동의를 나타내는 모든 말(언어적 표현). 예) “음” “그래요. 그게 맞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2) 부동의(반대) :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모든 말(언어적 표현). 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짓는)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3) 웃음 : 한 성원 혹은 그 이상의 성원들

이 들을 수 있는 모든 웃음의 양. 미소와 신긋이 웃는 것은 기록하지 않는다.

4) 침묵 : 이 범주는 침묵시간이 3초를 넘을 경우에 기록.

5) 방해 : 한 집단 성원이 다른 성원의 말을 가로막을 때마다 혹은 두 사람 이상이 동시에 말을 하고 있을 때 기록.

(6) 기록할 수 없는 발언

들을 수 없거나, 이해할 수 없거나 혹은 즉시 범주화 하기 어려운 말들을 기록하는 범주.

5. 절차

(1) 훈련 시간표

생략

(2) 효과측정 및 자료처리

처치집단 및 대기집단은 자아개념 검사로 사전, 사후, 추수 검사를 하였다.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훈련직전과 직후에 그리고 추수검사는 15주후에 실시하였다. 추수검사는 4월말에서 5월초사이에 우편으로 우송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처치(훈련)효과를 평가하는 동질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에 의한 설계로 동사설 소집단 훈련과 대기집단의 사전-사후, 사전-추수검사의 차이점수(자아 개념의 변화량)를 비교하였다. 자료분석은 일원변량분석방법(Oneway Anova)을 사용하였다.

(3) 과정측정 및 자료처리

1) 5박 6일간의 비구조화된 20회기를 모두 녹음하여 하루당 2회기씩 표집(동간격표집)한 후 10회기분의 축어록을 만들고 순차적으로 2회기분석 묶어서 한구획으로 하고 훈련의 전 과정을 5구획으로 구성하였다. 과정 분석의 기초자료인 축어록 작성은 다음의 절차를 밟아 완성 하였다.

* 표집된 10회기분의 녹음 테이프를 성덕여상 타자반 학생 6명에게 의뢰하여 1차 축어록을 작성

* 1차 축어록을 훈련에 참여했던 자들 중 서울지역에 거주하는 5명에게 주어서 각 언어반응의 발언자를 찾아서 기록하고, 축어록 내용의 수정 보완을 부탁하여 2차 축어록 완성

2) 완성된 축어록을 3인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Whalen(1969)의 언어반응 유목체계에 따라 평정하였다. 평정자 3인은 한국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 회원들로서 석사학위 소지자 2명, 박사과정 수료자 1명으로 예비자료를 가지고 연구자와 함께 2회의 사전 훈련과 토론을 거친 후에 실제 자료인 10회기분의 축어록을 각각 독립적으로 평정하였고 3인의 평정이 서로 일치하지 못한 언어반응들을 골라내어 연구자와 토론하여 최종적으로 일치된 유목을 그 언어반응의 평정자료로 삼았다. 세 평정자들 간의 일치도는 유관계수 .75~.92이었다. 집단 참여자들의 언어반응을 각 유목별로 빈도화한 후 각 구획의 총언어반응중 차지하는 비율로 환산하였고 5구획에 걸친 각 유목의 비율을 분석의 기본단위로 하였다. 자료처리는 집단전체를 분석단위로 한 경우에는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석방법, 개인의 자료가 촛점이 된 경우는 판별분석, 추세분석, X검증방법을 사용하였다.

III. 결 과

1.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동사설 소집단훈련의 효과.

자아개념에 대한 두 집단의 사전-사후-추수 검사의 평균 점수와 표준 편차는 표1)과 같다.

표1) 자아개념검사의 사전-사후-추수 검사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	집단 구분	처치집단(n=14)		대기집단(n=14)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총자아	사전	301.43	(34.87)	313.29	(22.49)
	사후	337.00	(30.30)	318.07	(25.41)
긍정점수	추수	322.46	(14.52)	319.08	(13.41)
	자아동일성	사전	104.57 (10.88)	109.36 (7.43)	
점수	사후	117.50 (12.74)	110.64 (8.12)		
	추수	113.23 (6.83)	110.85 (4.43)		
자아수용	사전	95.50 (11.43)	99.50 (7.94)		
	사후	105.07 (10.67)	102.50 (9.74)		
점수	추수	102.69 (6.69)	103.00 (6.14)		
	자아행동	사전	98.43 (9.16)	104.43 (9.63)	
사후		111.71 (12.90)	104.93 (8.65)		
점수	추수	106.54 (5.01)	105.23 (5.82)		
	신체적	사전	58.86 (8.47)	64.29 (8.86)	
사후		67.21 (7.97)	64.50 (6.04)		
자아	추수	64.77 (4.73)	62.69 (6.59)		
	도덕적	사전	62.43 (7.76)	64.71 (6.18)	
사후		68.64 (8.01)	64.93 (3.72)		
자아	추수	65.77 (6.17)	64.92 (2.93)		
	성격적	사전	59.50 (7.83)	61.36 (3.83)	
사후		69.14 (6.48)	62.14 (7.43)		
자아	추수	63.31 (5.17)	63.15 (5.21)		
	가정적	사전	61.64 (7.17)	63.36 (7.22)	
사후		64.64 (7.07)	65.64 (6.78)		
자아	추수	65.46 (4.46)	66.15 (4.86)		
	사회적	사전	59.79 (8.75)	59.57 (6.87)	
사후		66.57 (7.04)	60.86 (6.99)		
자아	추수	63.15 (3.16)	62.15 (3.11)		

동사설 소집단훈련의 처치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중속측정치인 자아개념의 변화량D(사후 검사점수-사전검사점수)와 DD(추수검사점수-사전검사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2), 표3)과 같다.

표2) 사전-사후검사간의 변화량(차이점수 : D)의 평균과 표준편차

	처치집단(n=14)	대기집단(n=14)
총자아긍정	35.57(35.34)	4.79(11.56)
자아동일성	12.93(12.55)	1.29(5.36)
자아수용성	9.57(13.13)	3.00(4.74)
자아행동성	13.29(13.19)	0.50(4.54)
신체적자아	8.36(4.91)	0.21(3.66)
도덕적자아	6.21(10.03)	0.21(4.04)
성격적자아	9.64(9.62)	0.79(3.70)
가정적자아	3.00(5.56)	2.29(3.10)
사회적자아	6.79(9.05)	1.29(3.67)

표3) 사전-추수검사간의 변화량(차이점수 : DD)의 평균과 표준편차

	처치집단(n=13)	대기집단(n=13)
총자아긍정	27.23(28.45)	2.77(11.76)
자아동일성	9.46(11.08)	1.00(4.28)
자아수용성	8.54(10.23)	2.54(4.91)
자아행동성	9.23(8.86)	-0.77(6.04)
신체적자아	6.92(6.17)	-1.38(4.72)
도덕적자아	4.85(7.59)	-0.08(3.17)
성격적자아	4.77(6.58)	0.69(2.98)
가정적자아	5.08(6.18)	2.38(4.99)
사회적자아	4.69(6.01)	1.15(3.72)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즉각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자아개념의 변화량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4)와 같다.

표4)에서 보는 바와같이 변량분석결과 자아개념검사의 하위변인중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자아긍정 총점수(F=9.60, P<.01), 자아동일성(F=10.20, P<.01), 자아행동성(F=11.76, P<.01), 신체적자아(F=24.76, P<.001), 도덕적자아(F=4.30, P<.05), 성격적자아(F=10.33, P<.01) 그리고 사회적자아(F=4.44, P<.05)였다. 자아수용성, 가정적자아는 의미있는 변화가 없었다. 이상의 결

표4) 사전-사후검사간 변화량(차이점수 : D)의 변량 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값
Tot	집단간	6634.32	1	6634.32	9.60**
	집단내	17969.79	26	691.15	
	전 체	24604.11	27		
I	집단간	948.89	1	948.89	10.20**
	집단내	2419.78	26	93.07	
	전 체	3368.68	27		
II	집단간	302.29	1	302.29	3.10
	집단내	2533.43	26	97.44	
	전 체	2835.71	27		
III	집단간	1144.32	1	1144.32	11.76**
	집단내	2530.36	26	97.32	
	전 체	3674.68	27		
A	집단간	464.14	1	464.14	24.75***
	집단내	485.57	26	18.75	
	전 체	951.71	27		
B	집단간	252.00	1	252.00	4.30***
	집단내	1522.71	26	58.57	
	전 체	1774.71	27		
C	집단간	549.14	1	549.14	10.33**
	집단내	1381.57	26	53.14	
	전 체	1930.71	27		
D	집단간	3.57	1	3.57	.08
	집단내	526.86	26	20.26	
	전 체	530.43	27		
E	집단간	211.75	1	211.75	4.44*
	집단내	1239.21	26	47.66	
	전 체	1450.96	27		

*P<.05 **P<.01 ***P<.001

TOT: 총점 I: 자아동일성 II: 자아수용 III: 자아행동성

A: 신체적 자아 B: 도덕적 자아 C: 성격적 자아

D: 가정적 자아 E: 사회적 자아

과들은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자아 개념검사의 자아긍정 총점수 및 6개의 하위 변인들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자아개념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수검사와 사전검사간의 차이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는

표5)와 같다.

표5) 사전-추수 검사간 변화양(차이점수 : DD)의 변량 분석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 자승화	F 값
Tot	집단간	3889.38	1	3889.39	8.21**
	집단내	11370.62	24	473.78	
	전 체	15260.00	25		
I	집단간	465.39	1	465.39	6.60**
	집단내	1693.23	24	70.55	
	전 체	2158.62	25		
II	집단간	234.00	1	234.00	3.64
	집단내	1544.46	24	64.35	
	전 체	1778.46	25		
III	집단간	650.00	1	650.00	11.30**
	집단내	1380.62	24	57.53	
	전 체	2030.62	25		
A	집단간	448.62	1	448.62	14.87***
	집단내	724.00	24	30.17	
	전 체	1172.62	25		
B	집단간	157.54	1	157.54	4.65*
	집단내	812.62	24	33.86	
	전 체	970.15	25		
C	집단간	108.04	1	108.04	4.14
	집단내	627.08	24	26.13	
	전 체	735.12	25		
D	집단간	47.12	1	47.12	1.49
	집단내	758.00	24	31.58	
	전 체	805.12	25		
E	집단간	81.39	1	81.39	3.26
	집단내	598.46	24	24.94	
	전 체	679.85	25		

*P<.05 **P<.01 ***P<.001

표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주 후까지 훈련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변인은 자아긍정총점수(F=8.21, P<.01), 자아동일성점수(F=6.60, P<.01), 자아행동점수(F=11.30, P<.01), 신체적 자아(F=14.87, P<.001) 및 도덕적자아(F=4.65, P<.05)이고 훈련직후의 즉각적 효과가 감

소한 변인은 성격적 자아(F=4.14, P=.053)와 사회적자아(F=3.26, P<.083)였다. 훈련직 후 효과를 보였던 자아긍정 총점 및 6개의 하위변인들 중 자아긍정 총점과 4개의 하위변인들은 15주 후까지 유의미한 변화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2개의 하위변인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15주 후까지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대기집단에 비해 자아개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지만, 훈련 직후의 측정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던 2개의 하위 변인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 효과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처치집단과 대기집단의 자아개념의 변화량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 보기위하여 이원변량 분석한 결과는 부록에 제시하였다(부록2).

2. 언어반응분석

본 연구에서는 축어록을 통해 분석한 결과를 가능한 한 많이 제시하여 전체적인 훈련의 윤곽을 파악하고, 또한 원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전반부에 기술통계를 이용한 언어반응 분석 결과를 자세히 보고하였으며 후반부에는 집단내의 개인에 초점을 두고 분석한 자료를 제시하여 연구과제 검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1) 집단과정의 전체적 분석

동사섭 소집단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언어반응상의 변화를 다섯구획으로 나누어 구획내 언어반응유목 비율을 산출하여 주요 유목별로 표6)에 제시하였다. 또한 훈련이 진행됨에 따라 참여자들의 언어반응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반복측정 일원변량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표6) 주요 언어반응 유목별 평균 비율(각구획기준)

	1 구획	2 구획	3 구획	4 구획	5 구획	F 값
자기노출	.468(.129)	.421(.186)	.440(.154)	.304(.131)	.359(.129)	2.97*
귀환반응	.451(.122)	.404(.173)	.455(.165)	.528(.219)	.515(.184)	1.35
일반적 자기노출	.033(.052)	.014(.021)	.021(.029)	.017(.026)	.034(.060)	1.02
집단과정	.011(.032)	.002(.008)	.000(.000)	.006(.013)	.003(.010)	.38
의사전달	.038(.043)	.034(.052)	.026(.046)	.020(.026)	.029(.042)	.48

*P<.05 숫자는 평균. ()는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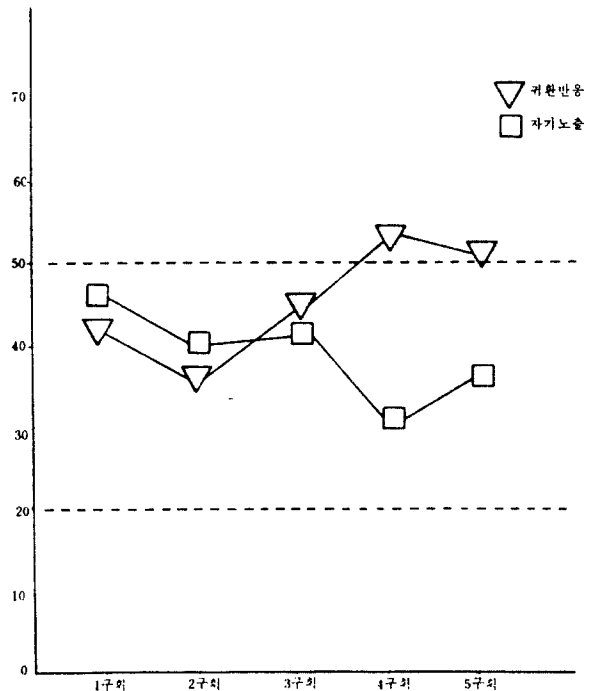
표6)에서 보면 자기노출은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어느 구획과 어느 구획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발생시키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치들간의 대비(Contrast) 즉 쌍별 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한 결과 3구획과 4구획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감소($t=2.13, P<.05$)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Kirk, 1982). 즉 1, 2, 3구획에서 약 40%수준 이상을 보이던 자기노출이 4구획에서부터 약 30%수준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귀환반응은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1, 2, 3구획에서 약 40%수준이었던 것이 4구획에서 부터 약 50%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훈련 과정의 언어반응 중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중요한 과정요인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훈련과정이 진행되어감에 따라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특정한 변화양상을 보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에 제시된 언어반응의 구획별 평균 비율에는 주 상담자와 보조 상담자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효과측정에 응했던 14명과 효과측정에 응하진 않았지만 훈련 과정에는 참여했던 2명을 포함한 총 16명의 언어반응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단, 주 상담자와 보조 상담자의 언어반응 비율은 부록 4에 제시하였다). 또한 집단 전체 참여자의 언어반응 빈도가 구획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을($F=.35, P=.84$) 확인 한후에 빈도를 비

율로 환산 하였다(부록 3). 그리고 언어반응 유목들 중 일반적 자기노출, 집단과정, 의사전달어 등은 그 출현빈도가 작고 연구과제와 관련이 적어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도표1)은 집단과정 동안에 참여자들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 추세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집단평균을 기준으로 나타내었다.

도표1)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 (집단평균 기준)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세부유목별로 어떤 구획별 평균비율을 제시하였다. 변화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표7)에

표7) 훈련진행에 따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평균 비율(세부유목별)

		1 구획	2 구획	3 구획	4 구획	5 구획	F 값
자	개 인 적	.296	.267	.270	.193	.220	1.64
	자기노출	(.114)	(.159)	(.149)	(.098)	(.083)	
기	즉 시 적	.089	.083	.089	.057	.098	1.46
	느 낌	(.048)	(.065)	(.056)	(.041)	(.070)	
노	개 인 적	.083	.071	.081	.054	.041	1.29
	질 문	(.070)	(.076)	(.058)	(.052)	(.051)	
출	긍 정 적	.151	.119	.202	.231	.261	3.39*
	귀환반응	(.089)	(.102)	(.065)	(.082)	(.066)	
귀	부 정 적	.119	.118	.079	.098	.053	1.99
	귀환반응	(.143)	(.075)	(.099)	(.163)	(.133)	
환	중 성 적	.114	.095	.104	.142	.156	1.26
	귀환반응	(.085)	(.084)	(.080)	(.097)	(.086)	
반	수 용	.044	.034	.027	.023	.018	.80
	귀환반응	(.048)	(.066)	(.044)	(.056)	(.021)	
응	거 부	.023	.033	.042	.031	.026	.26
	귀환반응	(.025)	(.036)	(.107)	(.056)	(.035)	
요	구	.001	.005	.001	.003	.001	1.08
	귀환반응	(.003)	(.012)	(.005)	(.007)	(.005)	
일	반 적	.029	.009	.006	.003	.004	3.09*
	자기노출	(.052)	(.016)	(.018)	(.019)	(.011)	
적	집 단 외	.002	.003	.000	.009	.019	2.00
	과 정	(.008)	(.007)	(.000)	(.020)	(.525)	
노	일 반 적	.003	.003	.016	.004	.011	2.00
	질 문	(.010)	(.009)	(.026)	(.010)	(.025)	

*P<.05 숫자는 평균. ()는 표준편차

※ 표 6)과 표 7)에는 주 상담자와 보조상담자의 언어반응은 제외되어 있으며 집단과정에 참여한 16명의 반응을 종합한 것이다.

표 7)에서 보면 귀환반응의 세부 반응유목 중 긍정적 귀환반응의 비율이 훈련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다. 1, 2 구획에서는 20%수준에 미달하던 반응이 3, 4, 5구획에서는 20%수준을 넘고 있다. 또한 긍정적 귀환반응과 반대 속성을 지니는 부정적 귀환반응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는 아니었으나 1, 2구획에서는 10%를

넘던 비율이 3, 4, 5구획에서는 10% 미만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 자기노출은 훈련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비율이 유의미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동사설 소집단 훈련의 참여자들은 집단과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일반적으로, 초기에 비해 후기로 가면서 긍정적 귀환반응을 더 많이보이며 그와는 반대로 부정적 귀환반응이나 일

반적 자기노출은 더 적게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8)은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진행과정 동안의 주요 언어반응의 양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구획 구분없이 총 언어반응 중 각 주요유목이 차지하는 백분율을 나타내 주고있다.

표 8) 동사섭 소집단 훈련과정에서 주요언어반응 유목별 백분율

반응	개인적 대화	귀환반응	일반적 논의	집단과정	의사전달어
%	42.8%	49.27%	2.56%	0.52%	3.20%

표 8)에서 보면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전체 언어반응 중에서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동사섭 소집단 훈련 과정에서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을 중시한다는 것이 전체 참여자들의 언어반응에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효과와 과정변인과의 관계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그리고 후속 연구자들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아개념 변화량과 언어반응과의 상관계수를 두가지 측면으로 분석하여 부록 5에 제시하였다(1. DT, DDT와 각 언어반응 유목의 평균 비율과의 상관계수, 2. DT, DDT와 단순 출현빈도와의 상관계수).

2) 각 언어반응의 변화과정과 효과의 관계에 대한 분석

표 9)는 참여자 개인들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하여 구획별로 개인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평균비율을 제시하였다. 또한 자아개념의 대표치인 자아긍정 총점수의 변화량(DT, DDT)과 변화의 방향(상향변화: +, 하향변화: -)도 제시하였다.

표 9)을 통해서 각 참여자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을 살펴 볼 수가 있다. 참여자들의 개인별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반응비율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연속선으로 그려서 시각적으로 조사했을 때, 공통된 속성을 추론할 수 있는 심리검사의 Profile과 같이 몇개의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자아긍정총점의 변화량을 개

인별로 살펴 보았을 때 전체 14명중 훈련직후에는 12명이 긍정적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15주 후에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한 사람은 7명이었다. 그리고 참여자3은 두번의 측정 모두

표 9) 자기노출, 귀환반응의 구획별 비율 및 자아개념 변화양

참여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자 1 구획	.42	.80	.26	.33	.42	.52	.40	.50	.46	.38	.51	.64	.50	.33
자 2 구획	.55	.40	.50	.50	.50	.41	.51	.20	.53	.48	.55	.00	.00	.56
자 3 구획	.57	.51	.43	.39	.43	.43	.49	.51	.58	.00	.40	.33	.45	.57
자 4 구획	.44	.25	.30	.31	.34	.43	.36	.33	.00	.29	.37	.29	.33	.00
자 5 구획	.32	.00	.27	.33	.28	.48	.48	.54	.39	.46	.31	.37	.46	.25
귀환반응														
1 구획	.43	.20	.60	.67	.42	.44	.57	.49	.38	.47	.42	.25	.50	.55
2 구획	.42	.60	.42	.50	.41	.53	.48	.60	.34	.45	.46	.00	.00	.40
3 구획	.43	.50	.59	.48	.52	.46	.49	.34	.33	.00	.55	.63	.56	.35
4 구획	.50	.67	.70	.68	.60	.46	.59	.66	.00	.64	.51	.67	.68	.00
5 구획	.65	.00	.72	.68	.64	.34	.52	.33	.51	.52	.58	.55	.54	.75
변화양														
DT	25	29	-8	69	22	27	79	6	24	-1118	3	34	61	
DDT	38	1	-25	54	25	30	85	*	43	1	41	10	7	44

1차 변화는 훈련전과 훈련직후 2차 변화는 훈련직후와 15주후를 비교한 것으로 '+'는 자아개념의 대표점수인 자아긍정 총점의 증가를, '-'는 감소를 나타냄.

* : 추수검사불응

에서 계속 부정적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언어반응과 훈련효과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류된 세집단의 개인별 Profile과 자아긍정 총점의 변화량을 차례로

제시하였다. 첫번째 집단은 다섯명(1, 3, 4, 5, 11)으로 집단과정의 후반기에 자기노출은 감소하고 귀환반응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두번째 집단은 여섯명(6, 7, 8, 10, 12, 13)으로 5구획에서 자기노출은 증가하고 귀환반응은 감소하여 첫번째 집단과 비교하였을 때 5구획에서의 변화양상이 서로 상반된 모양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3명(2, 9, 14)은 앞의 두 집단에 속하지 못하여 세번째 집단으로 분류되었다.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이 유사한 참여자들끼리 세집단으로 구분한 것이 신뢰로운 구분인지 확인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시행한 결과 전체 정확 판별율이 100%로서 연구자가 각 개인의 Profile을 조사하여 세 집단으로 구분한 결과가 타당하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확인되었다(부록 6참조). 따라서 나누어진 세집단의 특징을 차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표2) 제1집단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 ()는 표준편차

참여자	1	3	4	5	11	평균
DT	25	-8	69	22	118	45.20(49.09)
1차변화	+	-	+	+	+	
DDT	38	-25	54	25	41	26.60(30.63)
2차변화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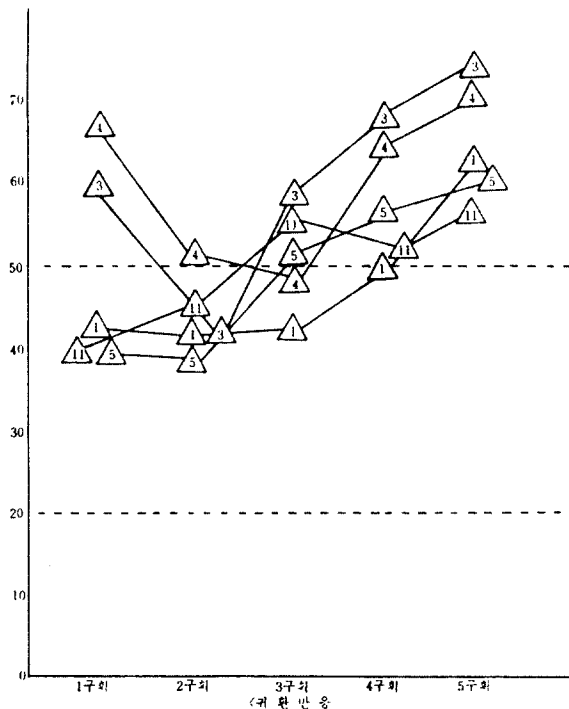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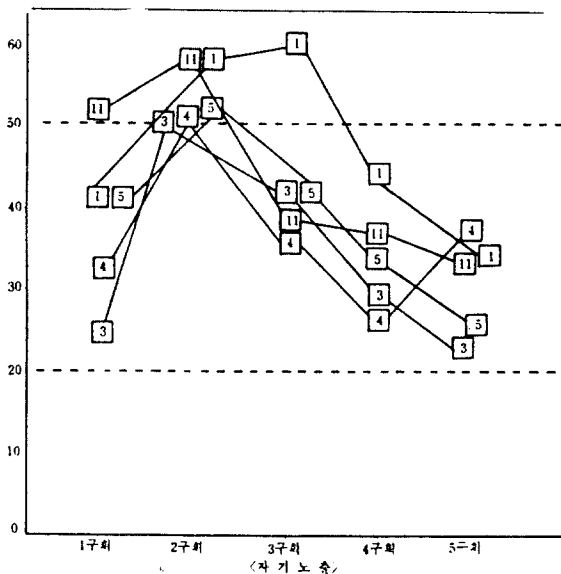


표 10) 제1집단의 구획별 자기노출, 귀환반응의 평균 비율과 표준편차

	1 구획	2 구획	3 구획	4 구획	5 구획
자기노출	.388 (.086)	.520 (.024)	.444 (.065)	.352 (.050)	.302 (.023)
귀환반응	.508 (.106)	.442 (.034)	.514 (.055)	.598 (.083)	.654 (.046)

제 1집단은 Tuckman & Jensen(1977)이 제안한 발달적 모형에서 시사한 바와 일치되게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양이 변화하고 있다. 다시말해서 자기노출은 2구획때 가장 높았다가 서서히 낮아지고, 귀환반응은 3구획에서 약간 올라갔다가 4, 5구획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집단 평균곡선에서 개인 곡선의 이탈정도가 세계의 집단중에서 가장 작아 일관된 양상을 보인다. 이 집단의 자아개념변화량은 훈련직후에는 45.20(49.09)이고 15주후에는 26.60(30.63)이었다. 훈련 후의 즉각적 자아개념의 평균변화량은 분류된 세 집단중 가장 높았다. 개인별로 변화량을 살펴보면 '참여자 3'은 -8의 변화량을 보인 하향변화자였고 '참여자 11'은 변화량이 118로 전체 14명

중 최상위 변화자였다.

15주 후에는 '참여자 3이 -25로 전체 14명 중 최하위, '참여자 4'가 54로 1집단 5명중에서 최상위였다. 참여자 3은 훈련을 받은 후 계속해서 부정적인 방향으로 자아개념이 변화하였다. 자아개념 변화량에 관계없이 이 집단의 참여자 5명은 훈련 과정 동안에 적극적인 참여자로 그리고 구획에 따라 기복없이 안정감 있게 참여 했던 것으로 촉진자들은 사후 평가를 하고 있다.

도표 3) 제2집단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

참여자	6	7	8	10	12	13	평균
DT	27	79	6	-1	3	34	24.67(30.07)
1차변화	+	+	+	-	+	+	
DDT	30	85	*	1	10	7	26.60(34.41)
2차변화	+	+		+	+	-	

* : 측정불가 .()는 표준편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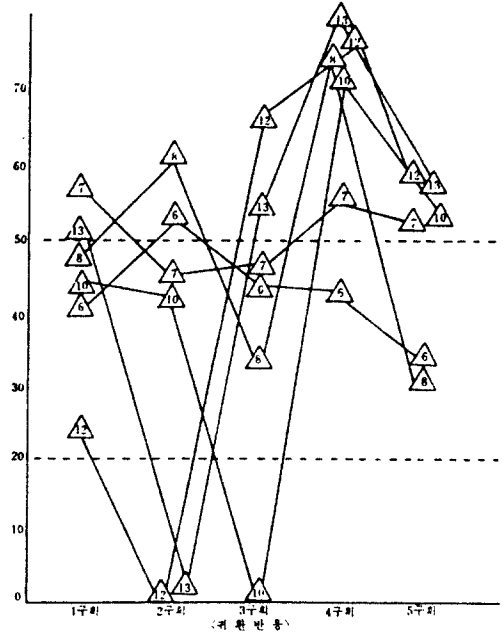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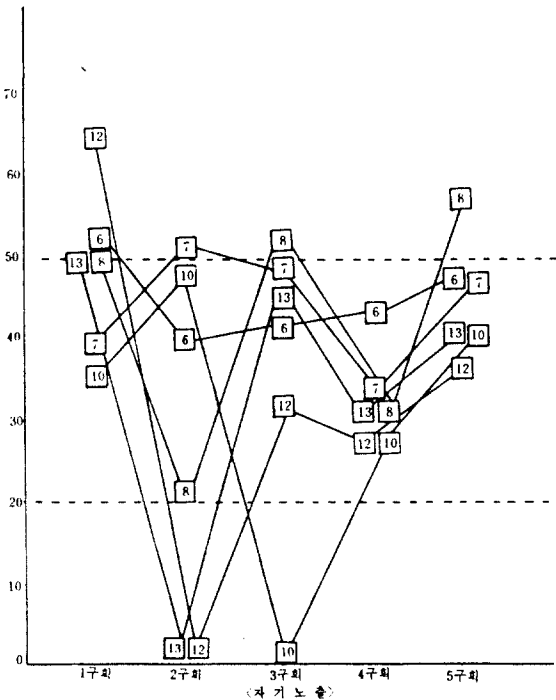
표 12) 제3집단의 구획별 자기노출, 귀환반응의 평균과 표준편차

	1 구획	2 구획	3 구획	4 구획	5 구획
자기노출	.530 (.198)	.497 (.069)	.553 (.031)	.083 (.012)	.213 (.161)
귀환반응	.377 (.143)	.477 (.111)	.393 (.076)	.223 (.316)	.420 (.313)

표 11) 제2집단의 구획별 자기노출, 귀환반응의 평균비율과 표준편차

	1 구획	2 구획	3 구획	4 구획	5 구획
자기노출	.490 (.085)	.267 (.213)	.368 (.174)	.338 (.048)	.465 (.050)
귀환반응	.453 (.099)	.343 (.247)	.413 (.205)	.617 (.076)	.467 (.0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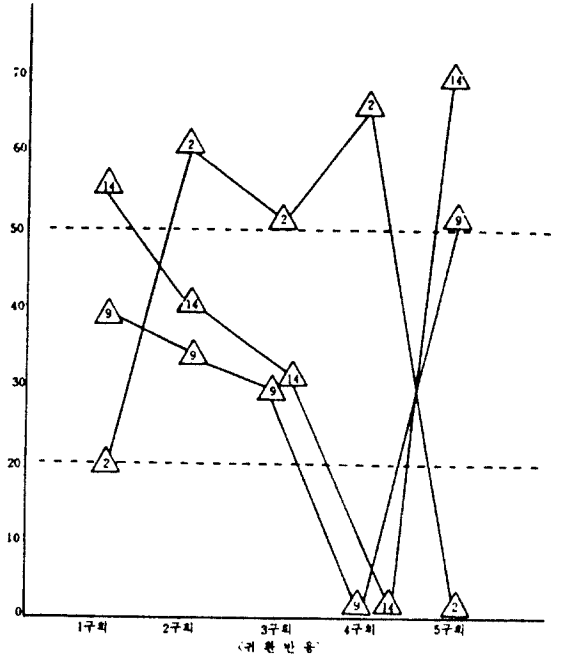
제2집단은 자기노출의 변화양상이 W모양이며 1집단이 후반기로 감에 따라 점차 낮아진 것과 반대로 5구획에서 상승하고 있다. 귀환반응은 4구획까지는 1집단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5구획에서 낮아짐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5구획에서의 1집단과 반대의 모양을 보여준다. 즉 1집단은 5구획에서 자기노출이 낮아지고 귀환반응이 높아졌는데 2집단은 자기노출이 높아지고 귀환반응이 낮아지고 있다. 또한 집단 평균곡선에



서 개인곡선의 이탈정도가 1집단에 비해 크다. 자아개념 변화량은 훈련직후 24.67(30.07), 15주 후에는 26.60(34.41)이었다. 집단 평균곡선에서 이탈이 심한 세 참여자는 10, 12, 13으로 구획에 따라 참여도의 기복이 심했으며 집단과정 발달단계 측면에서 볼 때 혼란과 불안이 심해질 수 있는 2구획 또는 3구획에서 참여를 거의 하지 않았다. 세 참여자들 각각의 자아개념 변화의 정도는 중, 하위권에 속하며, 즉각적 및 15주후의 자아개념의 실제 변화량은 참여자 10은 -1, 1, 참여자 12는 3, 10, 그리고 참여자 13은 34.7이었다. 이 집단에서 최상위 변화량을 보이고 있는 '참여자 7'은 즉각적 변화량은 79, 15주후는

도표4) 제3집단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

참여자	2	9	14	평균
DT	29	24	61	38.00(20.08)
1차변화	+	+	+	
DDT	1	43	44	29.33(24.54)
2차변화	-	+	-	



85였는데 훈련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여 개인적 문제 해결의 기회가 되었던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여자 7'의 배우자인 '참여자 4'는 집단 1에 속해 있으며 자아개념의 변화량이 즉각적, 15주후의 측정 모두에서 69, 54로서 변화의 정도가 상위권에 속해 있다.

제3집단은 1, 2집단과는 상이하며 일관된 변화양상이 없다. 극단적인 지점을 왔다 갔다 하는 양상을 보인다. 다시말하면 집단 내에서 적절한 참여라고 할 수 없는 양상의 참여를 하였으며 다른 참여자에 비해 관찰과 침묵 시간이 많았다. 이 집단 자아개념 변화량은 훈련 직후에는 38.00(20.075), 15주후에는 29.33(24.54)이었다.

이상에서 언급한, 분류된 세 집단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비율이 전구획에 걸쳐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는지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 집단 각각에 대하여 반복측정 일원변량 분석을 한 결과 1집단의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서 Tuckman & Jensen(1977)이 제안한 발달단계 모형에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추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13)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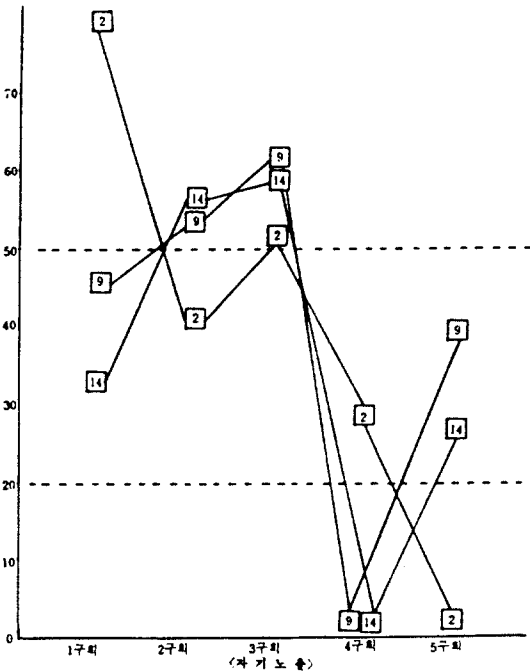


표13) 제1집단의 자기노출, 귀환반응에 대한
추세분석 결과

(자 기 노 출)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집단간	.14	4	.04	14.68***
집단내	.04	16	.00	

***P<.001

1차추세	2차추세	3차추세	4차추세
t=-4.45*	t=-3.55*	t=4.16*	t=.283

*P<.05

(귀 환 반 응)

변량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값
집단간	.14	4	.03	9.48***
집단내	.06	16	.00	

***P<.001

1차추세	2차추세	3차추세	4차추세
t=6.01**	t=2.26	t=-2.26	t=-1.62

**P<.01

집단 1의 분석결과는 자기노출에서 1차, 2차, 3차 추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귀환반응에서는 1차추세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Tuckman & Jensen (1977)이 제안한 발달단계 모형에 부합된다고 볼 수 있다. 동일훈련을 받은 14명의 참여자들 중 제1집단으로 분류된 5명은 자기노출에서는 곡선형태의 변화과정을 귀환반응에서는 선형의 변화과정을 보인다. 다시말해서 1집단은 초기 또는 후기에 비해 중기에 자기노출을 많이하고 후기에 들어서는 자기노출이 귀환반응으로 변화하여 귀환반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증가해간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특정 과정 변화양상이 훈련 효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동일한 훈련을 받은 한 집단의 참여자들을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였던 세 집단이 훈련효과에

서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자아개념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해서 상, 중, 하 3수준으로 나누어 검증을 한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있다(훈련효과는 자아개념 변화량, 즉 자아긍정 총점의 변화량을 기준으로 하여 상위 33%와 하위 33%, 그리고 그 중간 수준에 해당된 사람을 중위로 하여 3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표14) 자아개념 변화 수준에 대한 집단별에
따른 빈도분포

변화량(DT)의 정도

		상	중	하	
집	집단1	2	2	1	5
단	집단2	2	1	3	6
별	집단3	1	2		3
		5	5	4	14
		35.7	35.7	28.6	100.0

X²=3.43(P=.49)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나 훈련효과의 중위수준 이상이 집단1에서 4명으로 나머지 두 집단에 비해서 1명이 더 많았다.

변화량(DDT)의 정도

		상	중	하	
집	집단1	2	2	1	5
단	집단2	1	2	3	6
별	집단3	2		1	3
		5	5	4	14
		35.7	28.6	35.7	100.0

IV. 논 의

본 연구는 서구에서 활용 되어오던 T-집단이나 대면집단을 선불교와 접목시키려하는 동사십 소집단훈련이 참여자의 자아개념 변화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하는 것을 훈련직후, 훈련 15주후에 각각 자아개념 변화량을 측정하여 훈련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훈련효과와 관련이 높다고 생각되는 과정변인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이 훈련 전과정을 통하여 어떤 변화 양상을 보이는가를 실제 측어록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고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시간에 걸친 특정변화 양상이 얻어진 훈련효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88년 겨울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유료 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처치집단과 대기집단을 선정하였고 자아개념검사를 실시 한 후 두 집단의 자아개념을 비교하였다. 또한 훈련 전과정을 녹음하여 10 회기분의 측어록을 만들어 과정변인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 양상을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을 요약하고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몇가지 사실들을 기존 연구들과 관련하여 논의한 후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한계점 그리고 본 연구로부터 시사받을 수 있는 몇가지 중요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첫째,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자아개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즉각적 효과와 장기적 효과로 나누어 살펴 보았을 때, 훈련 직후 자아개념 검사의 측정결과 훈련전에 비해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자아긍정총점수($F=9.60, P<.01$), 자아동일성($F=10.20, P<.01$), 자아 행동성($F=11.76, P<.01$), 신체적자아($F=24.75, P<.001$), 도덕적자아($F=4.30, P<.05$), 성격적자아($F=10.33, P<.01$) 그리고 사회적 자아($F=4.44, P<.05$)였으며 15주 후의 측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변인은 자아긍정 총점수($F=8.21, P<.01$), 자아동일성점수($F=6.60, P<.01$) 자아행동점수($F=11.30, P<.01$), 신체적자아($F=14.87, P<.001$) 및 도덕적 자아($F=4.65, P<.05$)였다. 따라서 훈련직후의 즉각적 효과가

감소한 변인은 성격적자아($F=4.14, P=.053$)와 사회적자아($F=3.26, P=.083$)였다.

요약하면, 훈련 직후 자아긍정 총점수 및 6개의 하위 변인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고, 15주 후에는 성격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제외한 나머지 변인들은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개인별로 자아개념 변화를 조사해 봤을때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참여자 14명중 12명이 훈련 직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였고, 15주 후의 측정에서 7명은 훈련 직후에 비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소집단 훈련이 즉각적 훈련의 결과로서 참여자들에게 긍정적 변화를 일으킨다고 보고한 기존 연구들(Rubin, 1967; Culbert, Clark & Bobele, 1968; Reddy 1972; Rappaport, 1973)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15주 후의 측정에서 기존 추수 연구들(Treppa, 1972; Jones, 1975; Kimball & Gelso, 1974; Foulds & Hannigan, 1975)이 보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즉각적 훈련효과의 상당부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내준다.

효과 측정상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존 연구들과 다른점이 있다. 자아개념의 내적 준거 체제인 자아동일성, 자아수용성, 자아행동경향성 중에서 훈련 후에 자아동일성과 자아행동경향성만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기존 연구들이 POI와 같은 자기보고 측정도구상에서 여러변인에 걸쳐 전반적인 향상을 보였다는 것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즉각적 측정과 장기적 측정 모두에서 자아개념의 내적 준거체제 중 자아수용성만이 긍정적으로 변화하지 않은 것은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참가자들에게 자신들에 대한 높은 평가기준을 갖게 하는 특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아동일성 점수의 증가를 통해서서는 자존심이, 자아행동경향성점수를 통해서서는 주변 생활 환경에서의 적극성이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으나 자기만족을 나타내는 자기수용점수에서 향상이 되고 있지 않는 점은 기존 소집단 훈련 연구 결과들과는 다른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특징적 측면이라 할 수 있다. Rogers (1970)가 소집단 훈련을 주관하는 촉진자의 인간관, 태도, 신념등이 훈련 성과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한 점을 고려할 때,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촉진자가 인격적 성장을 지향하는 선불교의 수행승이라는 점이 참여자들의 자아개념의 내적준거 체제의 변화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촉진자의 철학적 배경, 인격 특성등이 훈련효과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고려를 할 수 있어야겠다.

자아개념의 외적준거체제 5개 변인중 즉각적 측정에서 신체적, 도덕적, 성격적, 사회적 자아가 긍정적으로 변화하였으나 15주 후에 성격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가 유의미한 변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감소하였다. 상담이나 심리치료에서 개인적 변화의 중요 요소로 지적하는 성격적 자아, 대인관계의 원만성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적 자아가 동사섭 소집단훈련 직후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보였으나 15주 후의 측정에서 그 변화가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기존 국내외 연구들이 훈련후 즉각적 측정의 결과만으로 훈련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함을 실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그 감소가 급격하지 않고 통계적 의의도를 살펴보았을때 성격적자아는 $P=.053$ 으로서 변화가 어느 정도는 지속되고 있음을 볼때 훈련 사후의 추수 프로그램 또는 반복 참여를 통해서 자아개념 변화의 유지 또는 향상을 기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훈련효과의 시간적 변화에 관한 한 연구(Harrison, 1966)는 T-집단이나 대면집단은 훈련의 효과가 놀랄만큼 장기간에 걸쳐 진행 변화한다고 하였다. 훈련직후, 6주후, 6개월 후에 차례로 인지적 변화를 측정했을때 훈련

직후 변화가 가장 크고 시간이 차츰 흐름에 따라 훈련에 의한 인지적 변화량이 감소하리라는 예상과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얻었다. 즉, 훈련직후에는 인지적 변화량이 통계적으로 의의가 없었고 6주 때는 의의가 없긴하였지만 긍정적으로 변화하였고, 6달후에는 통계적으로 의의있는 수준까지 향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소집단 훈련의 효과가 단순한 훈련의 실시 뿐만 아니라 훈련의 요소들과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장기간에 걸쳐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고 볼 때 동사섭 소집단 훈련 후 14명중 7명이 15주 후에 자아개념의 변화가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은 보다 장기적인 추수 연구의 필요성을 시사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동사섭 소집단 훈련이 유요자원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되었을 때 자아개념의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검증한 것이며 그 변화가 15주 후에도 상당부분 그대로 유지 지속되었다는 것을 통하여 유용한 소집단 훈련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축어록을 통한 훈련 과정의 언어반응 분석을 보면 동사섭 소집단 훈련과정에서 총 언어반응 양의 90%가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은 훈련의 진행 과정에 따라 동일한 수준이 아닌 시간경과에 따라 상대적 비율의 변화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집단 평균을 볼 때 자기노출은 5구획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보이고 있어서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비율이 줄어지고 특히 3구획과 4구획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귀환반응은 5구획 전구간에 걸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아니었으나 후반부에서 비율이 일반적으로 높다. 또한 귀환반응중 부정적 귀환반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차츰 줄어들고 긍정적 귀환

반응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점차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 귀환반응은 1구획에서 11.9%, 5구획에서는 5.3%였는데, 긍정적 귀환반응은 1구획에서 15.1%, 5구획에서 26.1%를 보이고 있다.

이상의 결과에서 Whalen(1969), Rappaport(1973), 그리고 Friedman & Ellenhorn(1975)이 강조했던 것처럼 집단의 과정변인으로서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중요성이 동사섭 소집단훈련에서도 참여자의 언어반응에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McGuire, Taylor, Broome, Blau & Abbott(1986)의 일부 연구결과에서 보여졌던 것처럼 집단과정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참여자들의 과정몰입의 질과 양이 달라진다는 것을 소집단 훈련의 축어록의 언어반응 분석을 통해 보여 주었다.

셋째, 언어반응 비율의 변화를 개인별로 살펴보았을 때 Tuckman & Jensen(1977)이 제안한 발달단계 모형에 부합되는 5명의 참여자와, 다른 2부류의 참여자들을 구분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세 집단으로 분류한 것은 통계적으로도 타당했으며, Tuckman & Jensen(1977)이 제안한 발달단계 모형과 일치되는 한 집단을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 Runkel 등(1971)이 실험적인 작업집단(Work Group)을 관찰한 결과를 통계적 분석없이 확인한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과정변인으로서 특정 언어반응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상대적 비율을 실제 훈련집단의 축어록 분석을 통해서 얻어낸 후에 추세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분류된 세 집단이 훈련효과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의미있는 결론을 내릴 수는 없었으나, 특정 발달단계 모형이 안정된 훈련효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것은 Tuckman & Jensen(1977) 모형과 일치된 집단이 즉각적 측정에서 자아개념 변화량의 평균이 다른 두

집단에 비해 높았으며 훈련 당시 적극적 참여 자세를 보였던 것으로 두 촉진자가 평가하였고, 훈련 후 개별접촉에서(전화, 서신, 면담)집단 경험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실제 근거로 들 수 있겠다. 기존 발달단계 모형과는 약간 상이 하지만 특정 변화양상으로 묶여진 다른 또 하나의 집단에 대해서도 사례연구방식을 통해 그 참여자들의 집단과정에서의 심리적 변화 또는 성격특성 등에 대해 기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Boyd & Ellis(1962)와 Bunker(1965)는 어떤 전형적인 훈련 효과의 논의는 부당한 것이라고 말한다. 즉 다양한 행동차원에서의 각 참여자의 변화패턴이 독특한데 이런 개인차 변인들이 훈련 프로그램 변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 하는가에 대해 명확한 근거없이 기대되는 결과를 미리 앞서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훈련의 효과는 독특한 것이고 각 참여자가 가진 개인적 목표에 근거를 두고 평가 되어야 하며 또한 현재 연구들에서 사용되어지는 효과의 평가도구들이 훈련의 결과로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화를 민감하게 반영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집단과정의 서술없이 획일적인 훈련 효과를 예언한다는 것은 소집단 훈련분야의 연구에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효과의 연구에서 흔히 즉각적 최종효과만을 보고하여 장기적인 변화를 추적하지 않는 것도 연구자료로서 불충분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다. 훈련의 효과가 생활사태에 어떻게 전이되는가는 각 참여자가 처한 생활공간, 대인관계, 개인적 인생목표 그리고 성격특성 등과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즉각적 훈련효과 만으로 집단훈련방법의 성패를 판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집단을 매개로 하여 개인의 변화를 시도하는 상담방법의 연구들이 효과를 측정할 때 과정변인에 대한 보고 없이 전체 집단의 평균점수만으로 획일적인 효과를

논의하는 것이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들은 앞으로의 집단과정의 연구들이 동일한 훈련이나 상담방법을 사용했더라도 분석을 할 때는 과정참여의 양상에 따른 구분을 하여 효과를 설명하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첫째, 국내외 연구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과정변인과 효과변인의 동시적 고려를 통한 훈련효과에의 설명을 시도하려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70년대 이후 국내에서 급격하게 관심이 늘어나고 활용도가 높아져 가는 T-집단 또는 대면집단의 정확한 과정과 효과에 대한 연구보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동사섭 소집단훈련을 대상으로 하여 그 과정을 집단 평균적으로 그리고 참여자 개인단위로 분석을 한 것은 지금까지의 국내연구가 중집단 형태의 집단지도자에 의한 프로그램 위주의 훈련을 대상으로 최종효과만을 훈련직후에 측정하여 보고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던 연구실태에 비추어볼 때 시도적 연구로서 의의를 갖는다.

둘째, 모의연구가 아닌 실제 훈련 전과정의 축어록 분석을 통해 과정연구를 하였고, 기존 서구식 T-집단이나 대면집단의 한국적 변형인 동사섭 소집단 훈련의 효과를 자아개념을 중심으로하여 검증하였으며, 그리고 15주 후의 추수연구를 통해서 시간경과에 따른 훈련 효과의 변화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셋째, 특정 발달단계 모형의 존재 여부를 단순관찰이 아닌 실제 축어록 분석을 통하여 중요한 과정변인인 자기노출과 귀환반응의 변화양상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넷째, 소집단훈련의 효과를 집단 평균뿐만 아니라 개인적 변화와 관련하여 확인 검증하려 했다.

본 연구에서 미비했던 점 및 앞으로의 연구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대기집단으로 선정한 대상들이 처치집단과 비교될 수 있게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즉 처치집단은 $N=1$, $df=0$ 이고 대기집단은 상호작용없이 임의의 기간을 사이에 두고 검사만을 반복하여, $N=14$, $df=13$ 인데 비교의 기준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효과를 측정함에 있어 행동관찰, 사후 개인면접, 설문조사 및 타인의 관찰등 복합적인 측정방법이 아닌 단일한 자기보고 방식의 지필검사 이외의 복합적인 효과측정이 지필검사에만 의존했다는 점이다. 실제 다양한 자료를 모으는데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자기보고 측정치들이 다양한 훈련효과를 민감하게 반영해주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셋째, 집단을 촉진하는 상담자 변인과,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훈련과정과 효과만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는 점이다. 소집단훈련의 효과에 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세부변인을 고려한 보다 면밀한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단일집단 참여자들의 숫자가 작아서 통계적 분석에는 부적절했다. 추론통계에 필요한 최소 사례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처치를 받은 여러집단 참여자들의 자료를 누적 수집하여 일관성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여야겠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자료가 한 집단 뿐이었지만 실제 준비된 자료는 88년 7월부터 89년 1월 사이에 정기적으로 실시된 동사섭 소집단훈련 5집단의 전과정 녹음테이프, 정서적 변화 측정치, 준비된 축어록(2집단의 20회기분)이었는데 축어록을 만들고 평정을 하는데 장기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여 한집단의 자료만으로 분석을 하게 되었다.

다섯째, 참여자의 자아개념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지니는 귀환반응을 각 참여자가 발신한 것이 아닌 수신한 것을 중심으로 효과와 관

련성을 알아보아야겠다. 자아개념의 변화는 각 참여자들이 다른 참여자들로부터 집단과정 동안에 받은 귀환반응의 질과 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는 언어반응의 발신자를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참여자의 자아개념의 변화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하기에 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

참고문헌

- 구본용,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집단상담의 현황, 학교상담에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활용, 한양대 학생생활연구소, 1988.
- 김현수, 카운셀링과 교육개혁, 전주:국제문화사, 1972.
- 윤정윤, 한국대학에 있어서의 집단상담의 필요성과 실제분석, 학생지도연구, 제19권, 제1호, 경북대학생 생활연구소, 1986.
- 이상훈, T-Group과 나, 인성개발연구, 제3호, 한국인성개발연구회, 1975.
- 이장호, 상담심리학 입문, 서울:박영사, 1982.
- 이장호, 인간관계훈련의 부정적 결과에 관한 검토, 인성개발연구, 제7호, 한국 인성개발연구회, 1976.
- 이형득, 집단상담의 실제,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형득, 인간관계 훈련의 실제,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정원식, 자아개념검사요강 서울:코리안 테스트링 센터, 1968.
- Argyris, C. T-groups for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rvard Business Review*, 1964, 42, 60-74.
- Argyris, C. On the future of laboratory education.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67, 3, 153-182.
- Bednar, R. L., & Battersby, C. P. The effects of specific cognitive structure on early group development.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76, 12, 513-522.
- Bednar, R. L., Melnick, J., & Kaul, T. J. Risk, responsibility, and structure: A conceptual framework for initiating group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4, 21, 31-37.
- Bednar, R., Weet, C., Evensen, P., Lanier, D., & Melnick, J. Empirical guidelines for group therapy: Pretraining, cohesion, and model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74, 10, 149-165.
- Bloch, & Crouch, Therapeutic factors in Group psychotherapy, Oxford Univ. Press, 1985.
- Bradford, L. P., Gibb, J. R., & Benne, K. D. T-group theory and laboratory method. New York: Wiley, 1964.
- Bunker, D. R. Individual applications of laboratory training.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65, 1, 131-148.
- Campbell, J. P., & Dunnette, M. P. Effectiveness of T-Group Experiences in Management Training and Development. *Psychological Bulletin*, 1968, 70, 73-105.
- Cashdan, S. Interactional psychotherapy. New York: Grune Stratton, 1973.
- Clark, J. V., & Culbert, S. A. Mutually therapeutic perception and self awareness in a T-group.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65, 1, 180-194.
- Corey, G.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counseling. Monterey, CA: Brooks-Cole, 1981.
- Cozby, P. C. Self-disclosure: A literatur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973, 79, 73-91.
- Crews, C. Y., & Melnick, J. Use of initial and delayed structure in facilitating group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6, 23, 92-98.
- Culbert, S. A., Clark, J. V., & Bobele, H. K. Measures of change toward self-actualization in two sensitivity training group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 1968, 15, 53–57.
- D'Augelli, A. R., & Chinsky, J. M. Interpersonal skills and pretraining: Implications for the use of group procedures for interpersonal learning and for the selection of nonprofessional mental health worker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74, 42, 65–72.
- Delaney, D. M., & Heimann, R. Z. Effectiveness of sensitivity training on the perception of nonverbal commun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66, 13, 436–440.
- Diamond, M. J., & Lobitz, W. C. When familiarity breeds respect: The effects of an experimental "depolarization" program on police and student attitudes toward each other. *Journal of Social Issues*, 1973, 29.
- Dietzel, C. S., & Abeles, N. Client-therapist complementarity and therapeutic outcom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5, 22, 264–272.
- Dollard, J., & Miller, N. E. Personality and psychotherapy: An analysis in terms of learning, thinking, and culture. New York: McGraw-Hill, 1950.
- Dukes, W. F. N=1. *Psychological Bulletin*, 1965, 64, 74–79.
- Egan, G. Encounter: Group processes for interpersonal growth. Belmont, Calif.: Wadsworth, 1970.
- Foulds, M. L. Effects of a personal growth group on a measure of self actualiza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70, 10, 33–38.
- Foulds, M. L., Wright, J. C., & Guinan, J. F. The marathon group: A six-month follow-up. *Journal of College Student Personnel*, 1970, 11, 426–431.
- Geller, L. The failure of self actualization theory: A critique of Carl Rogers and Abraham Maslow.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82, 22, 56–73.
- Geller, L. Another look at self actualization.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1984, 24, 93–106.
- Gelman, R., & McGinley, H. Interpersonal Liking and Self-disclosure. *Journal of Counseling & Consulting Psychology*, 1978, 46, 1549–1551.
- Goodstein, L. D., & Dovico, M. The Decline and Fall of the Small Group.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1979.
- Greenberg, L. Change process research.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1986, 54, 4–9.
- Greenson, R. R.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67.
- Guinan, J. F., & Foulds, M. L. Marathon Group: Facilitation of Personal Growt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970, 17, 145–149.
- Hall, C. S., & Lindzey, C. Theories of Personality (2nd ed.). New York: John Wiley Sons, Inc., 1978.
- Harrison, R. Cognitive change and participation in a sensitivity training laborator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966, 30.
- Hartman, J. J. Hartman Interpersonal Relations Assessment Medium. 1976. Ann Arbor: Univ. Michigan Television Center.
- Helmreich, Bakeman, & Scherwitz. The Study of Small Group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1973.
- Hill, C. E. Counseling Process research: Philosophical and methodological dilemmas. *Counseling Psychologist*, 1982, 10, 7–19.
- Hood, T. C., & Back, K. W. "Self-disclosure and the Volunteer: A source of Bias in Laboratory Experiments".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72, 17.
- Jacobs, A., Jacobs, M., Cavior, N., & Burke, J.

이 페이지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원문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는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

원문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빠른 시일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ABSTRACT

THE STUDY OF VERBAL RESPONSE CHANGE TREND AND SELF-CONCEPT CHANGE IN ENCOUNTER GROUP.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verbal interactional process in the small group training and to explore the effect of the small group training process on the training effect.

The training effect was measured by the change in the scores on the self-concept test, which was performed before, immediately after, and 15 weeks after the training. The participants were distributed into the treatment group (n=14) or the waiting list group (n=14).

The treatment group experienced the residential intensive process which consisted of 25 sessions, and were encourag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self-disclosure and feedback process in the non-structured situation. In contrast, the waiting list group were not given any training during the same period.

ANOVAs, based on the degree of change in the self-concept, indicated that in the immediate training effect the total score on self-affirmance and the scores on six subscales changed significantly, and in the follow up test self-affirmance and four subscales kept the training effect.

About 90 percent of the verbal responses in the group process was self-disclosure and feedback, which implied that self-disclosure and feedback were important factors in the small group training process.

The participants, though they experienced the same group process, differed in their verbal response patterns. Individual verbal response patterns divided the whole participants into three groups and one of these groups was congruent with the Tuckman & Jensen (1977)'s development model. This group indicated higher mean change score than the other two groups in the immediate self-concept test. These three group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training effect, but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